

## 광주가 벤처도시가 될 때 대한민국은 혁신주도국가가 됩니다!

GIST 이흥노 교수

2017년 10월 24일

경제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면 “경제가 좋다” 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 가 되는 것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 입니까?

굶지 않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시다만,  
요새는 매우 다양해 졌지요.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이지요.

이렇게 “잘 산다” 라는 기준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의 인위적 상승을 통한 소비촉진 및 성과분배 정책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추구로 좋은 경제를 유지 할 수 있을 까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세금 지원에 의한 임금의 인위적 상승 만으로는,

좋은 경제를 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생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산성 증대가 없으면, 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과 함께 써야 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법률상담로봇 등과 같은

혁신 제품과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GIST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타운 조성”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원의 재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기업가들을 양성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들어가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왜 광주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하는 답을 말씀드리고,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사업이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을 생산해내는 광주과기원이 있습니다.  
첨단특구 안에는, 광주테크노 파크, 광기술원 등 유관 기관들이 가깝게 위  
치해 있어 협력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출연 기관들과도 연계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빠르게 움직이는 5%에서 나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5%입니다.  
광주과기원이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기술 기반 벤처창업 선도모델을 만들기에는  
광주시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시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주도 형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광주과기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광주과기원의 사업 계획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과기원과 광역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을 혁신이 주도하여 지속 성장하는 사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혁신기술에 기반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나누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선진사회로 전환하는 것 것입니다.

라고 말 합니다.

끝